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학교 교과목을 공부할 때마다 마치 ‘죽은 지식’을 공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더라도 여전히 활자로만 느껴질 뿐, 배운 지식을 현실과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업에 회의가 느껴지자 수업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졌고, 이는 다시 교과 흥미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변화는 통합사회 수업 때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혁명을 시작으로 여러 인권운동을 거쳐 현대의 인권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책 속 지식이 지금 제가 사는 현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지식이 생명력을 얻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업 중 논의를 넘어 직접 학생 인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었던 저는 방과후학교 정책 제안 프로젝트반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교육권은 행복추구권과 같은 본질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일종이라는 개념에서 착안하여 학생 행복을 우선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고민했습니다. 국내외 학생 인권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고, 핀란드 교육이나 국제 바칼로레아와 같은 해외의 대안적 교육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연계, 체험 및 토론 수업, 학생별 맞춤 교육과정에 초점을 둔 ‘NOVEL’ 교육정책을 고안해냈습니다. 정책 제안 활동이 끝난 후 추가 활동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자고 제안했고, 영상 배포까지 전 제작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학생 인권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업 내용을 실제 학교 현장에 활용하니 비로소 지식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주체는 바로 저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새로운 활동을 통해 현실에 녹여낼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진로는 사회학연구원입니다. 학문 탐구에만 그치지 않고,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며 지식을 ‘살아있게’ 하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저는 소통하는 사회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문제에 공감할 때 사회에 가장 필요한 연구와 행동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던 활동은 학생회 기획부원으로서 진행했던 학생 민원조사 사업이었습니다. 학생회 부원이 막 되었을 때, 학교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학생들의 불만은 항상 가득했습니다. 해답을 고민하며 여러 책을 참고하던 중 책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를 읽으며 리더십의 핵심은 조직의 주체인 사람이 우선인 조직을 형성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학교라는 조직의 주체인 학생들로부터 출발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전교 대의원회의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소통 수단의 부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학교생활 중 생긴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통로가 없으니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학생과 학교 간 소통 수단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사업인 학생 민원조사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학교의 사례를 직접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완성하여 학생회 임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도 양식 제작 및 배부, 민원 해결, 피드백 수집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사업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시설 수리 같은 기본적인 민원 사항부터 체험학습과 방과후수업 관련 제안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제언까지 의견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학생들로부터 답답함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교류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하려는 태도가 조직 운영과 문제 해결의 초석이며 핵심임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배운 또 한 가지는 바로 도전의 가치입니다. 학생회 활동이 끝난 후 더 효율적인 소통방법을 고민하던 저는 친구들과 논의 후 교내 소통 앱을 만들고자 자율동아리 ‘잇다’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앱 개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는 자신 있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할 줄 모른다며 손 놓고 있기보다, 생소하더라도 도전하여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저처럼 코딩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모아 함께 프로그래밍 언어 Java를 공부하는 모임을 주도하며 최선을 다해 코딩을 익혔습니다. 코딩에 능숙한 친구들도 쩔쩔매던 앱과 데이터베이스 간 연동 문제를 하이브리드 앱 기술을 활용하여 제가 직접 해결하기도 하며 앱 완성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상용화로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미숙한 분야라도 열의를 가지고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던 활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며 시야가 넓어지고 역량이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도전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잇다’ 활동에서 느꼈던 성취감을 마음속에 새긴 채 앞으로도 새로움을 기회로 여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것입니다.

1.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저에 대한 친구들의 평가는 ‘재수 없다’였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가 바뀌게 된 계기는 인문사회탐구대회였습니다. 세 명이 조를 구성한 후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 연구를 진행한 후 소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대회였는데, 이는 연구원을 꿈꿨던 저로선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조를 구성하여 대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처참했습니다. 자료는 부실하고 글의 진행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만 열심히 준비하고 조원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일어난 일 같아 조원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도 난 잘했는데 남들 때문에 망쳤다며 불평하던 중, 또다시 타인 핑계를 대며 자신을 위로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신에게 편한 방식만 고집하며 대회 준비를 엉망으로 만든 책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선 조원들에게 독선적인 진행에 대해 사과를 한 후,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역할 분배부터 다시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분량만 나누어 써오는 방식에서 자료 조사, 발표 준비 등 각자가 뛰어난 분야를 맡는 방식으로 바꾸니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기심을 버리니 조원들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없어 발표 자료 작업이 불가능했던 친구에겐 노트북을 빌려주고, 연구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던 친구를 위해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조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처음으로 ‘함께’ 해냈다는 느낌에 전율까지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내 손해를 감수하며 타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임을 배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각자의 특기를 살리며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할 때 더 뛰어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이때 배운 역지사지의 태도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모두의 역량을 끌어내어 슬기롭게 나아가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